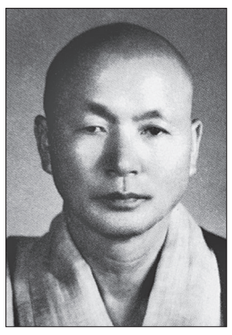
혼란 속 굳건한 흔들림 없는 방향성 제시

통합종단 60년, 과거서 현재를 보다

① 성립 배경 ③ 출범 이후
② 출범 과정 **④ 주요 인물**
⑤ 평가와 과제

출범 전후 비구 · 대처측 갈등
정부주도로 봉합 예견된 결과
비구 효봉·경산·청담스님 등
정화기치 토대로 명분 굳건히
대처측 임석진·박대륜 스님등
부당함 반발해 정체성 지켜내


효봉 스님


청담 스님


경산 스님


박대륜 스님


국묵담 스님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1962년 4월 11일 통합종단이 출범하기까지 한국불교는 숱한 곡절을 겪어야 했다. 비구 · 대처간 지난하게 이어진 분쟁과 갈등은 결국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돼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으며, 분쟁의 공식적인 종결을 상징하는 통합종단이 출범한 후에도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삐걱거렸다. 사실상 정부 주도로 추진된 갈등구도의 강제적 봉합 속에서 혼란과 분열은 불가피한 귀결이었다.

그럼에도 비구 · 대처 양측이 각기 확고한 방향성과 명분으로 저마다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각기 정통성과 원력을 담아내고자 했던 당대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통합종단 출범과 관련한 핵심인물들을 짚어봐야 할 이유다.

우선 통합종단 출범 당시 초대 종정을 역임한 비구측 효봉 스님과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대처측 임석진 스님은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 8년 동안 이어진 불교계 분쟁의 종식을 공식 선언한 대표자라는 점 때문이다. 효봉 스님은 통합종단 취임식에서 "불교종단의 단합은 매우 뜻깊은 일로서 우리는 앞으로 시들지 않는 한국불교의 꽃을 가꾸어 나가자"고 선언했다. 그러나 통합종단은 출발부터 비구 · 대처측 집행부 임원 선임 등에서 긴장감이 지속됐다. 임석진 스님은 5월경 종정 효봉 스님에게 보낸 서신에서 "통합된 종단의 원만운영을 위해 걱정해 주시는 원념에 깊히 감하하며 앞으로 소납이 맡은 바를 수행함에 있어 전력을 다할 것을 각오한다"면서도 "다만 화합을 위해 법리조례를 까다롭게 따지기보다는 분규의 요소를 해소시키고자 하기에 총무원 직원 임명문제가 지연되는 것이니, 독신승으로 임명하라 함은 화동단합의 근본정신을 감안할 때 적합지 못한 말씀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결국 7월경에야 양측 동수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문교부에 사회단체 등록을 했지만, 초대종회를 두고 갈등이 재점화됐다. 결국 일부 대처측 스님들은 법륜사에 총무원을 꾸리고 비구중심의 통합종단 무효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임석진 스님 또한 9월경 "화동단합이 깨지고 불교재건의 여망이 없는 지금 일부 독신승들의 와중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임한다.

이때 대처측 총무원장이 박대륜 스님, 종정이 국성우(묵담) 스님이다. 박대륜 스님은 1970년 창종한 태고종의 초대 종정이며, 국성우 스님은 통합종단 성립의 기초를 만든 불교재건위원회에서 비구측 동산 스님과 함께 종정으로 추대돼 합의선서를 했던 대처측 대표였다. 박대륜 스님은 특히 정부에 대처측 명의로 사찰등록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서는 등 태고종 창종의 토대를 쌓아나가는 등 행보로 주목된다.

대처측 임석진 스님의 사임 이후 혼란 속에서 통합종단 총무원장에 취임한 김법룡 스님은 대처측이었으나, 양측간 팽팽하게 이어진 긴장 속에서도 3년 3개월간 소임을 지속한다. 그리고 통합종단 첫 비구측 총무원장 경산 스님(초대 총무부장)에 이어 통합종단 출범을 이끌었던 청담 스님이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경산 스님과 청담 스님은 효봉 스님, 인곡 스님, 월하 스님 등과 함께 불교정화의 주역이자 통합종단 출범에 앞서 '승려 8대 원칙' 을 정한 핵심인물들이었다.

통합종단 전후 상황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주요인물들은 사실 당시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명망높은 스님들이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비구측 스님들의 경우 사실상 불교정화의 기치를 세우고 통합종단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주역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만 이에 비해 대처측 스님들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은 아쉽다.

종헌개정안 5건 전부 이월 · 부결

종회, 7월 19일 225차 임시회
총림 요건 완화 등 법안 이월
원로 의장 임기 단축은 부결
"최고법 종헌개정, 신중해야"


중앙종회는 7월 19일 225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된 종헌개정안 5건이 모두 이월되거나 부결됐다. 종헌은 종단 최상위 법인만큼,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정기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종회는 7월 19일 제225회 임시회를 열고 첫 안건으로 종헌개정안 5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 결과 5건 가운데 4건이 이월됐으며, 1건은 부결됐다. 종회에 입법발의된 종헌개정안이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이례적이다.

우선 종헌개정안 가운데 총림 구성요건을 4개 수행교육기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3개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은 발의자 요청으로 이월됐다. 호산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총림 구성요건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호산 스님이 "중요한 안건이기에 정기회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월을 요청하면서 논의는 차기로 연기됐다.

두 번째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출한 원로의장 임기 단축의 건은 논의 끝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부결됐다.

한 중앙종회의원 스님은 "종헌은 종단 최고법이자 흔들림 없는 위상과 정체성을 가지는 법안이기에 임시회를 통해 논의되기보다는 정기회를 통해 안정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특히 원로회의 등 일각의 요청에 따라 개정이 이뤄져선 안 될 뿐 아니라 효율성과 일관성, 효율성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도 이월됐다. 혜일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은 원로회의의 권한에 2급 이상의 법계심의권을 대종사 법계 심의권으로 개정하고, 종단 중요종책 심의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겸직금지 제한 완화의 건은 애초 격렬한 찬반논란이 예견됐던 법안이다. 개정취지는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 경험을 종무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종무원의 겸직금지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종헌개정안은 현행 제35조에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소임에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종무원을 명시한 규정을, 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만으로 좁히는 안이다. 그러나 토론 끝에 선광 스님이 법안의 수정보완 후 다시 논의키로 요청함에 따라 차기로 이월됐다.

마지막으로 선광 스님이 대표발의한 종헌개정안도 이월됐다. 해당법안은 총무원장 자격을 기존 승납 30년, 연령 50세로 제한한 현행 종헌 제53조를, 승납 35년, 연령 55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225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법안은 9월 종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17대 중앙종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는 점에서 향후 개정이 지속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 24명, 명사 27명 등 51명에 대한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송지희 기자

원행 스님, 우크라이나 난민 위해 20만 불

7월 18일 우크라 대사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난민 구호 기금 20만 달러(한화 2억 6000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7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예방을 받고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지원금을 전달했다.〈사진〉

스님은 드미트로 대사에게 "러시아가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조국과 국민 걱정에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전쟁 종식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종단은 러시아 침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긴급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本紙**가 협업해 진행된 모금 캠페인에는 총 6억 원이 조성됐으며 앞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도 6월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대사에게 20만 불을 전달한 바 있다. 모금 캠페인은 8월 12일까지 진행된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조계종,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에 대진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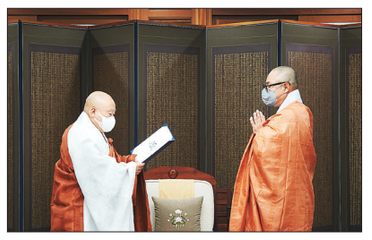
7월 20일 임명장 수여

조계종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 직무대행에 구례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이 임명됐다. 선암사는 수년째 조계종과 태고종간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법적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소임을 맡은 대진 스님의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7월 20일 대진 스님에게 주지 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소임을 수락해 줘 감사하다"며 "종단의 여러 입장과 종도들의 염원을 담아 소임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사진〉

특히 스님은 이날 임명장 수여에 앞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상황과 관련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하고 있기에,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종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진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종단 집행부와 잘 소통하고 논의해 원만하게 역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진 스님은 종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6년 수계했다.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및 천은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송지희 기자

KOMSCO 한국조폐공사

국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메달

2022년 7월 21일 출시



옛 국보 83호
삼국시대, 금속(금동)
높이 90.8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 금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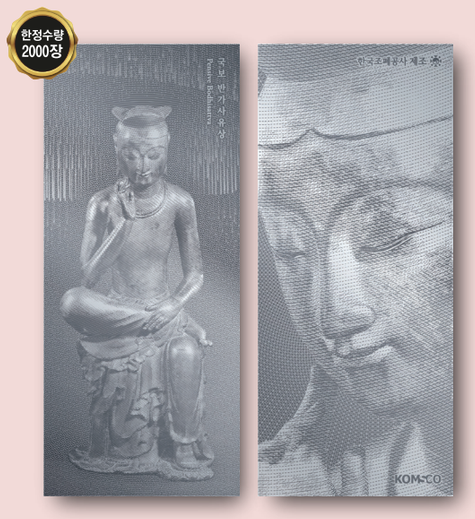
한정수량 200장



판매가격 : 2,640,000원
순금(Au999) / 20g / 154X68mm / UNC급

국보 반가사유상 지폐형 기념 은메달

한정수량 2000장



판매가격 : 110,000원
순은(Ag999) / 10g / 154X68mm / UNC급

2022년 5월 4일 완판



옛 국보 78호
삼국시대, 금속(금동)
높이 81.5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선착순 예약접수〉 7.21.(목)-8.5.(금),16일간
※ 배송 · 교부 : 11.21.(월)-11.25.(금)
구매처 : 한국조폐공사 오롯 다움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66 (6호선 광흥창역 5번 출구 / 주차가능)

온라인 판매
KOMSCO 한국조폐공사
POONGSAN 풍동양행
THE HYUNDAI.COM GS SHOP
LOTTE ON 롯데백화점

오프라인 판매
KOMSCO ORODT & DIYUM

협력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제조 및 판매 주관
KOMSCO 한국조폐공사
www.koreamint.com
문의: 1577-4321

오롯 골드바, 한국조폐공사가 순도 99.99%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구매처
오프라인: 한국조폐공사 오롯·디움관
온라인: 한국조폐공사 쇼핑몰 (www.koreamint.com)

문의
02-710-5222~5223